

## 2021년 <코로나19, 예술로 기록> 주요 질문사항(FAQ)

2021. 9.23(목)

### [지원자격]

#### 1. 활동명이 실명과 같지 않은(필명/예명 사용) 경우는 어떻게 활동증명을 해야 하나요?

☞ 기존 예술활동증빙 자료 외에, 실명과 필명/예명이 대조 가능한(실명과 필명 혹은 예명이 같이 적혀있는)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야 합니다. 예) 계약서, 저작권등록증 등

#### 2. 팀 단위로 참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 우선 두 가지 유형으로 예시하여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① 동일분야의 창작자 간 협업의 경우	→ 코로나19를 큰 주제로 정하고 세부적인 기획방향에 따라 동일분야 창작자들이 협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를 들어 전국에 산재한 방역의로 현장을 찾아가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소재)를 기록·발굴하는 활동을 문학 분야 창작자들이 지역을 배정하여 팀을 짜서 진행하고, 추후 이를 단행본으로 엮어 공동 출간할 계획을 갖는다든지...
② 타 인접 예술장르 간 협업의 경우	→ 원고 이외의 형태 즉, 영상(단편영화 또는 뮤직비디오), 오디오(낭독을 활용한 오디오북 등) 등의 양식으로 결과물을 산출하게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해당 인접분야 예술가들과 팀을 이루어 참여가 가능합니다.

☞ 어느 유형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며, 이때 가장 근간이 되는 창작영역(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으로 선택하여 지원신청을 하시면 해당 분야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동반 참가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 동반 참가자는 확정된 인원내 한해서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변동이 있을 경우라면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계획의 구체성 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향후 지원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금액(1인당 200만원)만큼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에는 개인이든 팀이든 동일인이 중복 참여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도 있는데, 참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사업이 신청될 경우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 변경이 되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확정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4. 예술가가 아닌 경우라면 팀 구성원으로 참여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 최근 5개년 간(2017-2021년 9월 말) 예술활동 경력 중 대표적 활동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예술가가 지원자격이므로, 예술가가 아닌 경우 팀 구성원으로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성에 예술가의 코로나19 기록 활동 지원이 있기 때문에, 예술가가 아닌 경우 팀원의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인터뷰 대상자 등에 대한 사례비 등 예산편성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 5. 단체(혹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예술가)는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개인 또는 팀 단위의 예술가이기 때문에 단체의 명의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단체 내에서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 프로젝트를 위한 10인 이하의 팀을 꾸려 대표개인의 명의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6. 팀원의 국적이 한국이 아니어도 가능한가요?

☞ 예술위원회 공통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에는, 기초예술 분야에서 예술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7. 영화평론 분야나 대중음악(밴드 등)에서 활동하는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한지요.**

- ☞ 기초예술을 기반으로 한 활동(문학평론, 연극, 음악(클래식, 실험음악), 다원예술 등)에서 활동하신 경력이 최근 5년 이내에 1건 이상 있으시면, 해당 장르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 본 사업은 기초예술을 기반으로 한 문학, 시각, 공연예술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사업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8. 참여 시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 ☞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9. 팀원이 국공립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예술인들도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할까요?**

- ☞ 국공립단체 소속 인원의 경우에는 각 소속기관의 내규 등에 따라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0. 신청 시, 제출하는 <참고자료>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 심의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최소분량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코로나19와 연관된 창작 활동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면 그에 관한 자료(작품, 보도기사, 서평, 홍보물 등)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창작 활동에 관한 일반자료는 제출하셔도 참고가 되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1. 활동증빙자료는 어떤 걸 내야 하나요?**

- ☞ 최근 5개년 이내에 창작활동을 한 실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여 예술가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 해당기간 동안 단 1건 만이라도 입증 가능한 실적이 있어도 인정됩니다.
- ※ 문학

① 작품 발표	→ 온·오프 문예매체 또는 문학상 수상 등 해당 작품 발표 지면 스캔하여 제출
② 작품집 발간	→ 판매·유통 중인 인터넷서점의 해당 화면이나 발간 보도기사 등 스캔하여 제출
※ 기타	→ 인터넷 동호회, 블로그나 개인 SNS를 통한 작품 발표는 제외 → 희곡의 경우는 공연 상연 등의 포스터나 홍보 인쇄물도 가능

※ 시각예술

① 전시 발표	→ 전시회 도록 표지 또는 리플릿 표지/내지 지면 스캔하여 제출 (전시 기간, 전시명, 신청자명 확인 가능해야 함)
② 작품(비평)집	→ 표지/발행정보면/목차 또는 작품 수록면 스캔하여 제출(신청자명 확인 가능해야 함)
※ 참고	→ 인터넷 동호회, 블로그나 개인 SNS를 통한 작품 발표는 제외

※ 공연예술

① 공연 발표	→ 리플릿, 프로그램북, 계약서, 실황 사진 등 스캔하여 제출 (신청자의 참여활동에 대한 객관적 정보 식별이 가능한 지면 발취)
② 음반(음원) 발간	→ 앨범 표지/발행정보면, 발간 보도기사 등 스캔하여 제출 (신청자의 참여활동에 대한 객관적 정보 식별이 가능한 지면 발취)
※ 기타	→ 기초 공연예술 장르(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전통예술, 음악, 창작오페라)에 기반을 둔 예술 활동에 대한 증빙만 인정 → 인터넷 동호회, 블로그나 개인 SNS를 통한 작품 발표, 학내공연은 제외 → 희곡의 경우는 문학분야로 신청

12. 활동증빙자료는 심의에 반영되나요? 활동증빙자료를 ‘링크’ 로 제출하라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아울러 신청할 때 10명으로 신청하면 10명의 활동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 활동증빙자료는 지원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용도로, 지원심의 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지원신청 예술가께서 조금 더 편리하게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사무처에서도 행정서류 검토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링크형태로 증빙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집 발간이나 전시, 공연 발표 등에 대해서 포털이나 인터넷 주소만 지원신청서에서 기재해주시면, 별도의 사진촬영이나 파일첨부 없이 활동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마지막으로, 팀 구성원이 10명일 경우 10명 개개인의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13. 작품을 영상이나 오디오로 완성할 경우, 제출분량(또는 용량) 기준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 ☞ 지원신청 주체께서 생각하신 프로젝트의 목적과 의미를 고려하여 자유롭게 분량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14. 문학 분야 작가의 경우 사진이나 영상 스케치 등의 자료나, 시각·공연 분야 예술가의 경우 원고 형식(인터뷰, 에세이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 물론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은 장르별로 결과를 제출양식이 결정된 것이 아니며,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창의적이고 다양한 기록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5. 예술인활동증명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나요?

- ☞ 필수 제출자료는 지원신청서 양식 내 세부활동계획, 서약서, 활동증빙자료(최근 5년 이내 대표활동 증빙 1건)입니다. 팀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에게 대한 활동증빙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활동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술인 활동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16. 예술활동 경력 증빙으로 예술인복지재단 신진예술인 활동증명도 인정이 되나요?

- ☞ 네,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17. 지원선정이 되면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지원금이 지급되나요?

- ☞ 지원금은 사전에 지급됩니다.

18. 지원금 선정 발표일은 대략 언제인지요? 그리고 지원금은 대략 언제 받을 수 있는지요?

- ☞ 올해 11월에서 12월 사이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9. 다수로 구성된 팀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금은 팀원 개별로 지급이되나요?

- ☞ 팀별로 팀 대표에게 지급됩니다.

20. 긴급지원금 성격이라 정산은 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어디다 썼는지 대략이라도 적어야 하나요? 다른사업처럼 전용카드와 통장발급받아서 써야 하나요? 정산은 안해도 된다면 개인에게 지원금을 대표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모두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 정산의 의무는 없으므로, 사용처에 대한 기재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보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신규통장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 ☞ 해당 긴급지원금은 포상금 지급 형태이기 때문에 팀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세법에 준하여 예술인에게 별도의 사례비를 지급하시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세 신고, 고용보험 신고의 의무를 가지십니다.

21. 공연예술 분야에서 주로 활동을 했지만 문학 분야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문학 분야로 참여가 가능한가요? 극작이 아니라 소설 같은 식이요.

- ☞ 해당 사례의 경우, 문학 분야에 활동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단, 결과물은 장르구분 없이 어떠한 형태든 가능합니다.

**22. 활동에 있어 코로나19 관련 해외사례 인터뷰, 리서치도 해당되나요?**

☞ 코로나19에 대한 기록활동으로서 인터뷰나 리서치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1회성 인터뷰나 리서치가 아니라 기록활동으로서 가치성을 가진 프로젝트로 지원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3. 중복수혜 불가라 함은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지원신청자 1인이 <코로나19, 예술로 기록> 사업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중복으로 지원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즉, 1인당 지원금액은 최대 200만원 정액이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지원신청 주체로서 개인이나 팀에 포함된 개인은 다른 지원신청 주체가 되거나 팀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원신청자께서 제출하신 프로젝트가 유관기관이나 지역문화재단에서 코로나19 지원사업(서울문화재단 SEARCH\_예술적 거리두기 해제법 등)에 선정되신 경우, 지원신청이 불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단, 지원신청자께서 제출하신 프로젝트가 유관기관지역문화재단 타 지원사업이나 단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으신 경우, 그리고 기 발표되었거나 발간된 경우에도 지원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 이외의 경우에는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으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24. 다른 장르와 함께 (복합 형태로) 참여할 경우, 어느 곳에 신청해야 하나요?**

☞ 복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가장 근간이 되고 비중이 높은 분야(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중 한 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5. 기록내용을 작품화해서 최종 제출해도 되는지요?**

☞ 네, 가능합니다. 예시된 다양한 장르상 완성된 작품양식(시, 소설·공트 포함, 에세이, 르포, 이미지) 외에도 작품으로 완성되지 않은 결과물의 양식(일기, 편지, 취재·인터뷰)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26. 기존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를 소재로 제작한 작품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존 제작된 작품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결과물이 주제와 얼마나 부합된 내용인지(주제의 적합성), 또 예술가의 활동답게 창의적인 방식으로 구현되었는지(예술적 창의성), 내용과 분량, 소재발굴활동의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계획의 구체성),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한 기록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기록의 가치성) 등의 심의기준에 따라 평가받아 지원 적합성이 결정된다는 점을 충분히 살피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7. 취재&인터뷰 활동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나요?**

☞ 네, 가능하다면 계획단계에서 충실하게 해당내용을 기획하여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변의 가족이나 이웃, 동료들의 체험과 사례를 참고하실 수도 있지만, 기존에 알려지지 못했던 의료방역 현장이나 교육, 군부대나 신혼부부의 삶 등 다양한 일상과 사회적 목소리들을 취재하는 것도 뜻깊은 프로젝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타인의 이야기나 경험담을 소재로 하여 작품화할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보도 등을 통해 접하셨겠지만, 이와 같은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아 타인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입히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례가 있으므로 이 점 충분히 안내와 절차를 따라 진행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8. 소재 발굴 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해야 하나요?**

☞ 소재 발굴 활동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주변 이웃이나, 지역, 직업군 등 특정 대상층을 설정하고, 5가지 유형 등의 활동으로 소재발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시 : 의료시설, 교육시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콜센터 등 감정노동직업군, 배달 업종 종사자, 군부대 등)

① 관찰	→지속적이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관찰하여 소재를 개발하는 방식
② 체험	→자원봉사 또는 실제 해당 업종에 단기 복무하는 방식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체험
③ 인터뷰	→대상자 군을 지정, 섭외하여 인터뷰를 통해 소재 개발
④ 워크숍	→대상자 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세미나, 토론회, 집담회 등을 통해 소재 개발
⑤ 리서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소재에 접근

☞ 소재 발굴 활동을 진행하실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취지설명 및 참여자들에 대한 사전 동의(서면 형태)를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을 진행할 때에는 동의절차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세부지침을 안내드릴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 사전 소재발굴을 위해 인터뷰를 진행할 경우 사례비를 지원예산에서 써도 되나요?**

☞ 네. 가능하다면 적절한 사례(금전적 보상 또는 사인도서 등 답례품 정도)를 마련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또한 수집된 정보에 대해 이후 작품화 단계 등 활용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서면 형태의 동의 절차도 필수적입니다. 최근 문학계에서 타인의 이야기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작품화한 사례 논란으로 문제가 된 부분을 착안하셔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이행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결과보고 관련]**
**30. 결과물을 제출할 때, 장르별로 작품 편수 기준은 따로 없나요?**

☞ 제출 편수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방식과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준을 자로 잰 듯 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고려 바랍니다. 다만, 기록화 작업의 방식과 결과물의 양식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시되, 텍스트로 작품화된 원고로 제출될 경우 사전에 계획 단계에서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계획을 제출해주시면 심사 단계에서 적절히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예시된 기준은 예시일 뿐 오히려 매년 예술위원회가 정기공모 시에 공개하는 '문예지 지원사업 적용 장르별 원고료 단가 기준'을 참고하여 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다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31. 제출된 작품을 추후 추가로 발표한다든지, 별도 작품 발표 및 발간 활동에 포함시켜도 되나요? (작품/전시/비평집 등)**

☞ 네. 제출하신 결과물 혹은 작품은 일정 기간 동안 공개할 의무가 있고, 원본을 저희 예술위원회에서 영구보존할 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일체는 해당 작가에게 귀속되므로, 추후 발표든 발간이든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 예술가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여 만든 결과물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권리 일체에 대한 내용을 구성원 간에 정하신 뒤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은 선정 사후에 교부단계에서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 작품으로 완성되지 않은 기록물도 결과제출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일기, 편지, 취재·인터뷰 등의 텍스트 양식 결과물은 물론, 영상, 이미지, 오디오클립 또는 이 모든 다양한 양식의 복합형식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해당 결과물이 주제와 얼마나 부합된 내용인지(주제의 적합성), 또 예술가의 활동답게 창의적인 방식으로 구현되었는지(예술적 창의성), 내용과 분량, 소재발굴활동의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계획의 구체성),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한 기록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기록의 가치성) 등의 심의기준에 따라 평가받아 지원 적합성이 결정된다는 점을 충분히 살피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지원심의기준 참조)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주제의 적합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코로나19의 시대적 상황과 그로 인한 일상의 변화를 잘 기록한다는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계획 중인 주제가 이에 부합하는가?</li> <li>·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과 사회적 모습,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예시 : 방역의료현장의 모습, 학생·학부모들의 학교생활 변화 등)</li> </ul>
예술적 창의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의 실행과정과 사업수행 결과물이 창의적이며 예술적 방법으로 실현되는가?</li> </ul>
계획의 구체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과 내용이 구체적인가?</li> <li>· 계획된 사업수행 결과물의 내용과 분량이 적절한 수준인가?</li> <li>· (팀 참여의 경우) 참여자의 역할 구분과 그에 따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li> </ul>
기록의 가치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수행 결과물은 예술적 기록으로서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가?</li> </ul>